

시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의 사회경제적 정체

박기형(송실대)

1. 서론

세계가 글로벌화될수록 빈부 격차의 심각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 전략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기적인 욕망이 무한의 경쟁 체제를 합리화시키고 가난한 자에 대한 인간애적 관심과 자선이 기대에 못 미치는 한 가난의 문제는 언제나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고 상존한다.

이스라엘의 시인들은 이처럼 인간의 품위를 격하시키는 가난이라는 스캔들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¹ 시편에서 '가난'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시편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와 고통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아우성으로 가득차 있다. "가난한 시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을 쳐부수려

1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서울: 분도출판사, 1979), 177.

고 역사 안에 개입하시리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훼는 가난한 이를 구하는 ‘해방자’이기 때문이다.”²

‘시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의 사회경제적 정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본 논문은 역사비평과 사회학적 해석 전략을 활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시편에서의 가난이라는 주제는 포로기 이후의 종교적, 사회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인 배경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본 논문의 논지는 시편의 가난이란 어디까지나 실제적인 빈곤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는 개념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본 논문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편의 가난한 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가난의 의미와 시편에 나타난 가난의 신학이 갖는 다면적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시편에서의 가난이 갖는 의미론적 범위는 영적인 혹은 비유적 차원보다는 어디까지나 물질적 가난과 주된 관련성을 갖는다. 둘째, 시편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성과들은 시편에 나타난 가난의 신학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지만 그 시기 면에서는 포로기 이후에 최종적 편집과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포로기 이후 예후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현실이 시편 37편과 109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시편에서 가난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다섯 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최종적 구성이 시사하는 시대적 배경과 매칭시켜 보면 제1권과 제5권에 가난의 주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권과 5권에 가난의 문제가 집중된 현상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 과거 왕정기

2 윗글, 177.

의 신학적 전승이 반영, 투사되어 재상황화(recontextualization)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가난한 자들의 사회경제적 정체는 포로기 이후 역사적 실제 상황과 구체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2. 시편의 가난한 자에 대한 연구사 개요

가난의 신학에 대한 학자들의 전통적인 관념은 ‘물질적 가난’의 묘사 혹은 ‘종교적 경건’의 유비라는 양대 축으로 나뉘는데 19세기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레츠(H. Graetz, 1882-1883), 뢰프(I. Loeb, 1892), 랄프(A. Ralfs, 1892) 등의 의견에 따라 빈자(貧者)를 뜻하는 ‘아나빔’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경건한 자들’의 무리로서 이교도의 정신에 물든 ‘악인들’(르샤임)과 대립한 인물들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³ 특히 랄프는 ‘아니’(עַנִּי)와 ‘아나우’(עַנָּו) 두 단어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나빔’이 이스라엘 중에 억압받는 계급으로서 하나의 종교적 결사체(party)였다고 주장한 것이다.⁴ 그런데 버클랜드(H. Birkeland)는 시편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국가이자 종교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겪은 집단적 투쟁을 기술하는 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편에서 두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동일 형태 어원의 변형이라고 보았다.⁵

1970년대의 칼 슈츠(Carl Schultz)는 버클랜드의 주장을 재반박한 바 있다.⁶ 슈츠는 두 단어가 기원과 의미에 있어서 별개의 것이라고 주

3 윗글, 179.

4 A. Rahlfs, עַנִּי und עַנָּו in den Psalmen (Oslo: Dybwad, 1892), 80-88.

5 H. Birkeland, ANI und ANAW in den Psalmen (Oslo: Dybwad, 1933).

6 Carl Schultz, “Ani and Anav in Psalms” (Ph. D. diss., Brandeis University, 1973)

장한다. 그에 따르면 ‘아니’는 언제나 개인을 가리키며 집단을 나타내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 결국 ‘아나빔’이란 이스라엘 중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별개의 집단 용어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태도를 의미하는 ‘차디크’(의로운)와 ‘헤세드’(신실한)에 비견되는 종교적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다.⁷

한편 스티븐 크로프트(Steven J.L. Croft)의 관심은 가난한 자의 의미가 물질적 고난으로 이해되는가, 아니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건의 한 형태로 이해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그는 가난과 관련하여 시편에 나타난 단어들의 의미 범주(range of meaning)를 정하고 이를 화자의 정체성과 관련지어 두 개의 축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 공간에 카탈로그처럼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⁸ ‘아니’와 ‘아나빔’의 두 용어들이 단지 물질적 가난을 가리키는 용법 만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데니스 터커(Dennis Tucker Jr.)는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특정 시편의 신학과 야웨의 왕권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했다.⁹ 그는 먼저 시편에 나타나는 ‘가난’이란 용어를 공시적으로(synchronously) 분석한다. 터커는 크로프트의 방법론을 따르되 에비온(עֲבִיּוֹן), 달(דָּל), 아니(עֲנִי), 그리고 아나우(עָנָו)처럼 가난의 의미를 담은 여러 단어들로 조사의 범

7 율글, 225f.

8 크로프트는 첫 번째 축으로서 가난과 관련된 의미 범주를 고통(Afflicted), 가난(Destitute), 궁핍(In Need), 의로운 자와 동의어(Synonym for Righteousness), 단순한 비유(Empty Metaphor)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서 화자의 정체성을 개인(Individual), 왕=개인(King = I.), 왕=공동체(King = C.), 공동체(Community)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 두 축이 교차하여 만들어내는 일종의 의미 공간 위에서 가난에 해당되는 용어의 용례를 분석하였다. Steven Croft, *Identity of the Individual in the Psalms*, JSOT:Supplement Series 44 (Sheffield: Sheffield Press: 1987), 53-72.

9 W. Dennis Tucker, Jr., *The Reign of Yahweh and The Theology of the poor in the Final Shape of the Psalter* (Ph. D. diss.,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7).

위를 넓혔다. 그의 초점은 이 단어들이 갖는 다중의미적(polysemiotic)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단어군(群)이 경제적 빈곤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달리 ‘아나빴’은 물질적 가난보다는 하나의 은유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제롬 크리치(Jerome F. D. Creach)는 시편 신학의 중심을 ‘의인의 운명’, 즉 의인의 삶과 운명에 대한 관심으로 보면서 시편에서는 의인을 가리키는 차디크라라는 단어가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아니, 달, 그리고 에비온과 같은 용어들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¹⁰

국내 학자로서 최근에 학위를 마친 최지승은 시편 74편과 76편을 기점으로 ‘가난한 자의 신학’이 해석적 전환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¹¹ 사회 내적 구조에서 ‘가난한 자’가 당하는 ‘고통의 상황’에 대한 탄원을 담고 있는 74편 이전과 달리 74편과 76편에 등장하는 ‘아니’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면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일레는 시편에서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 약자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다.¹² 예컨대 시편 10편에서 가난한 자의 고난은 물리적 빈곤의 상황을 넘어선다는 것이다.¹³ 그러면서 그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가난한 자들’의 신학적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한다.¹⁴

10 Creach, Jerome F. D., “The Destiny of the Righteous and the Theology of the Psalms”, in Jacobson, Rolf A.(ed.), *Soundings in the Theology of Psalm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Minneapolis: Fortress, 2011), 49-51.

11 최지승,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 시편 74편과 76편의 אֲנִי〈아니〉에 대한 해석적 전환을 중심으로”, 『구약논집』(2023년 3월), 161-191.

12 이일레,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의 종말론적 희망”, 『구약논단』(2023년 9월), 216.

13 이일레,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2021년 12월), 193-194.

14 이일레,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 연구”, 『성경원문연구』(2022년 4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에서 가난의 개념이 물질적 빈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가난으로 변화 또는 확장되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시편에서 발견되는 가난의 개념이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가난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로 보다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분위기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영성화 혹은 신학화된 가난의 개념(*Armenfrömmigkeit*)을 내세우기도 한다. 시편에서 탄원하는 화자가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때 그가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을 겪고 있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원수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가난한 자와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얻으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3. 시편의 사회과학적 해석과 본 연구의 접근 방법

구약학자들은 시편들의 사회적 배경 및 시편들에 언급된 가난한 자나 원수들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방면의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게스텐베르거(Erhard S. Gerstenberger)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게스텐베르거는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삶의 상황이 다양한 만큼 시편의 신학적 관점 역시 다양하다고 본다.¹⁶ 시편과

월), 37-59.

15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4. (Grand Rapids, MI: Eerdmans, 1988).

16 Nancy deClaisse-Walford et al.,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MI: Eerdmans, 2014), 44.

사회적 이슈와의 관계를 보다 넓은 상황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점에서 게스텐베르거의 해석은 사회학적 접근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그는 시편의 각기 다른 장르가 특수한 사회적이고 제의적인 집단을 반영한다고 본다.¹⁷ 게스텐베르거에 따르면 시편이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은 대체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정황에 해당된다.

고대사회에 대한 사회학의 고전적 연구는 쉬무엘 노아 아이젠스 타트(Shmuel Noah Eisenstadt)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특별히 역사적 제국의 사례를 강조했는데 페르시아와 식민지 예후드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의 기능주의적 이론을 적용하였다.¹⁸ 그에 따르면 고도의 사회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제국은 중앙(center)과 구분되는 주변부(periphery)에도 관료적 정치엘리트의 등장과 성장을 촉진시킨다.¹⁹ 그리고 식민 지배하의 엘리트는 제국의 중앙과 주변부 사이에 위치하면서 물리적 자원, 기술, 사회통제, 이념과 같은 자원들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가난한 자의 편에서 본 시편은 외세의 보호 아래 큰 이익을 보고 있었던 유다의 상류층 엘리트들에 맞서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시편은 공동체 내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의 제국적 압제 아래에서 상대적인 자율과 이익을 누리고 있던 권력층 때문에 희생되고 있는 상황, 예컨대, 느헤미야 5장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17 Erhard S. Gerstenberger, "Theologies in the Book of Psalms", 607. Peter W. Flint & Patrick D. Miller(ed.),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 Reception*, (Boston: Brill, Leiden, 2005)

18 S. N. Eisenstadt, *Political Systems of Empire: The Rise and Fall of the Historical Bureaucratic Societies* (New York: Free Press, 1969), ix-xv.

19 S. N. Eisenstadt, "Systemic Qualities and Boundaries of Societies: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Jeffery C. Alexander(ed.), *Neofunctionalism*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1985), 99-112.

20 Walter Brueggemann and Wiliam H. Bellinger, Jr. *Psalms*,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P, 2014), 7.

시편에 나타난 가난이라는 용어의 의미론적 분석에 치중한 영미권과 달리 독일어권 학자들 사이에서는 ‘경건하고 가난한 자의 결사체 (party)’이라는 랄프의 가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²¹ 그런데 최종 편집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시편의 대부분은 포로기 이후에 지금의 완결된 형태를 갖추었으리라는 학설에 학자들 대다수가 동의한다. 따라서 최종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편의 ‘가난한 자’에 대한 역사적 주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포로기 이후를 역사적 배경으로 전제하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설사 포로기 이전의 왕정기 혹은 더 이전의 시기에 기원을 둔 시편이라 할지라도 문서화된 시편이 즐겨 낭송되고 또한 공적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은 포로기 이후, 제2 성전기였음이 거의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의 원래 저작 시기와 관계없이 최종 편집된 시편이 즐겨 애송되고 왕성하게 사용되었을 포로기 이후 시대에 그 시편들이 어떻게 이해되었을 것인가라는 해석의 관점에서 시편들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편의 가난한 자에 대한 서술과 시편에 나타난 가난의 신학이 포로기 이후에 최종 편집 및 완성되었다는 학자들의 공감대 위에서 포로 후기 귀환공동체의 상황과 제2 성전기 초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시편의 가난을 사회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1 예컨대, 요하네스 로(Johannes Ro)는 렌스키(Lenski)의 사회학적 모델을 채택하여 제사장 집단에 속하지만 지배계급에서는 배제된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가난의 신학’을 문서화했다고 제안한다. Johannes Ro, “Socio-Economic Context of Post-Exilic Community and Literac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vol. 120(4) (2008): 597-611. 한편 요하네스 브레머(Johannes Bremer)는 예후드(777)라는 페르시아의 속주에 대한 보다 최근의 고고학적 논의를 참조하고 있는데 그의 광범위한 연구 중에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페르시아 시대 가난한 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규명이다. Johannes Bremer, “Eine ‘Armenredaktion’ im 1. Davidsalter? Impulse vor dem Hintergrund sozio-ökonomischer Entwicklungen”, F.-L. Hossfeld, J. Bremer and T.M. Steiner(ed.), *Trägerkese in den Psalmen*, BBB 178(Göttingen: V&R, 2017), 200-202.

4. 시편에서 가난과 관련된 히브리 용어들의 분포 및 실제적 의미

브레바드 차일즈(Brevard Childs)가 던진 정경비평의 제안은 제럴드 윌슨(Gerald H. Wilson)에 의해 편집사 비평이라는 새로운 방향에서 계속 수행되었다.²² 윌슨에 따르면 특정 시편의 위치와 배열은 시편이 어떻게 읽히고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그는 모든 시편이 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제왕시편의 편집과 배열의 많은 부분은 그 책들의 봉합선(seams)를 따라 나타난다고 말한다.²³ 이처럼 윌슨은 시편이 몇 가지 단위로 편집되어 최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윌슨은 차일즈의 최종 본문 중시 사조를 받아들여서 시편을 연구하면 시편 1-150편의 저작배경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보았다. 즉 시편의 1권부터 3권은 다윗 왕조가 무너지기 이전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4권부터 5권은 다윗 왕조가 무너진 이후 바벨론 포로 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윌슨의 제안을 바탕으로 시편의 각 권에서 가난에 관련되는 용어들의 등장 빈도와 분포를 실증적 관점에서 탐색하려고 한다.

가난 혹은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 용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다뤄져 온 기본적인 용어는 ‘에비온’, ‘달’, ‘아니’, 그리고 ‘아나우’이다. 터커나 크로프트의 분석도 이들 단어의 의미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런데 터커와 그의 연구를 확장한 데이빗 아다모(David Tuesday Adamo)에 따르면 위의 네 가지 용어는 가난과 관계된 첫 번째 수준의 용어들에 해당된다. 이들 단어에 추가로 두 번째 수준의 용어들이 존재하는데 ‘다크’(억눌린), ‘라쉬’(결핍된), ‘아슈킴’(억압된), ‘할라카’(의지

22 Gerald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23 Gerald H. Wilson, "The Use of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TOT* 35 (1986): 85-94.

할 데 없는), ‘야툼’(고아), ‘알마나’(과부) 등이 그것들이다.²⁴ 이들은 첫 수준의 단어들과 달리 통상 ‘가난한’ 또는 ‘고통당한’이라고 직접 번역되지 않는다.²⁵ 다음 페이지의 표는 아다모가 말하는 첫 번째 수준의 네 단어와 두 번째 수준의 여섯 단어를 대상으로 시편의 각권에 등장하는 구절과 그 횟수를 연구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아다모의 연구에 기초하되 이를 보다 완전하게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시편에서 히브리 단어 ‘아니’는 모두 37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²⁶ 아다모의 조사에 따르면 ‘아니’가 ‘고통당한’(afflicted)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13번이고 ‘빈곤’(destitute)이라는 의미가 10번이며(예컨대 12:6), ‘궁핍’(in need)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10번(예컨대 25:16, 18)인 반면, ‘의로움’(righteous)으로 사용된 것은 4번이다.²⁷ 이러한 통계는 ‘아니’의 다양한 용법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자적 의미로 경제적 빈곤이나 물리적 억압을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라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아나우’ 혹은 그것의 복수 형태인 ‘아나빔’은 시편에 12번 나타난다.²⁸ ‘아나우’가 종교적 경건을 묘사하는 데 얼마간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것은 경우에 따라 “의로움”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예컨대 25:9, 34:3). 그리고 ‘아나우’가 단순한 비유로 사용된 경우는 5번이다(22:27; 37:11; 76:10; 147:6; 149:4). 복수 형태인 ‘아나빔’은 물질적 가난보다는 공동체적 회복, 민족적 승리와 구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나임’과 연결된 상태에서 ‘아나우’가 언급된 구절들은 “의로움”보다

24 David Tuesday Adamo, “The Poor in the Book of Psalms,” *OTE* 27/3 (2014), 804.

25 윗글, 804.

26 “אני”, BDB.

27 Adamo, 윗글, 807.

28 “אנני”, BDB.

level 1	אביון	9:19; 12:6; 40:17; 35:10; 37:14; 49:3 (6)	69:34; 72:13; 70:5; 74:21 (4)	82:4; 86:1; (2)		107:41; 109:16; 22,31; 112:9; 113:7; 132:15; 140:13 (8)	20
level 2	רש		82:3 (1)				1
	דך	9:10; 10:18 (2)	74:21 (1)				3
	עשוקים				103:6; 146:7 (2)		2
	חלכה	10:8, 10, 14; (3)					3
	אלמנה		68:6; (1)	78:64; (1)	94:6; (1)	109:9; 146:9 (2)	5
	יתום	10:14, 18 (2)	68:6 (1)		94:6; (1)	109:9, 12; 146:9; (3)	7
합계	40	19	8	4	24	95	

시편의 언어장(場)에서 세 번째 용어인 ‘달’은 시편에 총 5번 등장한다(41:2; 72:13; 82:3; 113:7 그리고 11:13). ‘달’은 그 용례에 있어서 언제나 지속적으로 “빈곤”을 의미한다. ‘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카드어 어근인 *dullum*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골칫거리, 억압, 고통”을 의미한다.³⁰

그리고 넷째로 ‘에비온’과 그것에 관련된 형태는 시편에 총 24번

30 Bonn Fabry, “דָּל”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I (ed.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transl. by J. Willis, G. Bromilry and D. Green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1978), 210.

나타난다.³¹ ‘에비온’은 ‘달’과 함께 3번 등장하면서 “물질적 궁핍”을 의미한다. ‘에비온’과 접속된 ‘아니’는 8번 등장하는데 “정말로 가난한” 혹은 “심한 가난”을 의미한다. ‘에비온’이 “고통당한”을 의미하는 경우는 4번이고 “빈곤”을 의미하는 경우는 15번이며, 4번은 “궁핍”을 의미한다. 반면에 그것이 “의로움”을 의미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³²

위에서 언급된 네 개의 용어는 말하자면 언어의 다중의미성을 고려하여 터커와 아다모가 말하는 의미장(場)의 첫 번째 수준(level 1)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가난 혹은 빈곤이라는 경제적 물질적 개념이 아닌 경건이나 의로움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용례는 제한적이다. 예외적인 경우인 ‘아나우’ 역시 그것이 “의로움”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단지 세 번에 불과하다.

터커가 말하는 두 번째 수준(level 2)에 관련되는 용어들 중 ‘라쉬’는 어근인 שר from 파생된 것인데 그 의미는 “가난에 처하다”이며 시편 82:3에만 한 번 등장한다.³³ 시편 82편의 문맥이 경제적 박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 차원의 “빈곤”을 의미한다. 한편 “으스러진” 또는 “분쇄된”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온 ‘다크’는 시편에 단지 3번 나타난다.³⁴ 이 두 단어는 적은 용례이긴 하지만 명백히 가난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아슈킴’은 시편 103:6과 146:7에서 두 번만 나타난다. 어근인 עשק는 “억압하다” 혹은 “나쁜” 사람을 의미한다. ‘아슈킴’의 용례는 배고픈 자, 감옥에 갇힌 자, 눈먼 자, 비천한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가

31 “אביון”, BDB.

32 Adamo, 윗글, 807.

33 “שר”, BDB.

34 “דך”, BDB.

리킨다.³⁵ 그러므로 그 의미는 어디까지나 사회경제적 차원의 “빈곤”에 해당할 것이다. ‘헬카’는 문자적으로 “의지할 데 없음”을 의미하며 시편 10:8, 10 그리고 14절에만 등장한다.³⁶ 이 용어는 도와줄 손길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두 단어 역시 그 용례는 적지만 종교적 의미보다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알마나’와 ‘야툼’은 시편에서 과부와 고아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된다. 고아나 과부라는 단어가 직접 가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도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적 추방의 위협과 경제적 박탈을 가리킨다. ‘알마나’는 5번, 그리고 ‘야툼’은 모두 7번 등장하는데 이들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시편에 8번 나타나며 그 기본적인 의미는 “빈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⁷

이상의 분석은 터커와 아다모의 연구를 확장하여 가난과 관련된 용어를 망라하여 시편 각 권에서의 분포와 그 의미를 분석한 것이며 그 결론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가난과 관련된 용어를 비유적인 것으로 영성화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요약하자면 ‘아니’와 ‘아나우’가 예외적으로 종교적 경건 혹은 의로움을 의미하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면 시편에 사용된 가난과 관련된 용어들의 용례는 사회경제적 가난과 관련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울러 가난과 관련된 시편의 언어가 1권과 5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아우성이 왕정기와 포로기 이후에 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백성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

35 “עשוקים”, BDB.

36 “חלכה”, BDB.

37 Adamo, 윗글, 808.

한 시기는 왕정 수립 이후이다. 왕정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평등사회는 무너지고, 경제·사회적으로 진정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출현한다.³⁸ 한편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인들은 가장 비옥한 농토를 차지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앗시리아에 의해 형성된 옛 식민지 주민들로부터 착취의 대상이 됨에 따라 빈민으로 전락하였다.³⁹ 말하자면 왕정기는 권력자들에 의한 토지 수탈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전개된 상황으로서 땅의 상실과 공동체의 붕괴가 빈곤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포로기 이후는 그 원인이 귀환포로 공동체가 본토의 땅을 온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과세 부담에 시달린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시편에 나타난 가난이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게으름과 같은 개인적 원인에서 비롯된 자연적 가난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파생된 문제라는 점을 암시한다.

5. 시편 37편과 109편에 함축된 가난한 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각 시편의 본문이 형성될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현재로서는 학자들이 모든 역사적 요인들을 통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억눌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표현이 맞아떨어지는 사회적 갈등의 상황을 현실의 역사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신학적 목소리만이 아닌 가난한 계급의 실제적 목소리 역시 본문에서 발견할 수

38 서인석, 율글, 36.

39 서인석, 율글, 38.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포로기 이후의 상태는 왕의 부재(不在) 하에 이루어진 제사장 통치(hierocracy)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정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편의 가난한 자들의 사회경제적 정체를 묻는 질문은 포로기 이후의 예후드 지역을 배경으로 풀어가야 한다.

물론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는 모든 시편이 이 시기를 반영한다는 주장은 정확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사회적 무질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일어났고 특별히 왕조가 멸망하는 순간에 무질서는 정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로기 이후 예후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가난한 자의 시편이 제왕시들 사이에 포함되고 시편 전체의 최종적인 편찬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제2 성전기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낮은 계층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난한 자들이 귀환포로 공동체와 경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가난의 신학이 태동한 배경과 관련하여 헤이스와 밀러(Heyes and Miller)는 포로기 이후 초기 동안 발생했던 이스라엘의 사회적 갈등을 언급한다.⁴⁰ 우리는 에스라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재건의 초기에 유다의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벌어졌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헤이스와 밀러가 보기에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귀환자의 상당수가 신명기적 이념에 기초하여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종교를 옹호했던 반면에 제사장들은 보편적이고 일신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 기인한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상에는 관심이 없었고 민족주의적 열망도 부족했다. 그들은 강직한 아웨주의자들의 소망과 달리 신명기의 배타적인 이념을 따르지

40 J. Maxwell Miller and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2nd edition (London: SCM, 2006), 470.

않았다. 헤이스와 밀러에 따르면 히브리 텍스트 중 일부는 이 두 경쟁 집단에 의해 저작된 일종의 정치적 산물이다.⁴¹

라이너 알베르츠(Rainer Albertz)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포로귀환 이후에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느헤미야 5장 및 10장과 관련하여 알베르츠는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가난의 신학이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만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그리고 귀환공동체의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약간의 단초를 제시한다.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무지막지한 과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압력 아래 가난한 자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⁴² 지배계급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결과 거의 모든 경제적 부담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본질은 사악한 부자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에 저항하는 가난한 백성의 탄원으로 표현되었다. 아마도 이것이 가난의 신학이 무르익는 결정적 계기였을 것이다. 알베르츠는 이사야 29:17-24; 35:1f; 58:5-9a; 59:1-21과 시편 37, 94, 그리고 109편이 이러한 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⁴³ 빈곤층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법정에 불러졌으며(사 29:21; 시 37:32f; 94:21; 109:2f),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기도 했다(사 8:6). 굶주림과 혈벗음, 집 없음, 구걸 행위 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사 58:7; 욥 22:6f; 31:16-20).⁴⁴ 알베르츠는 이런 본문들이 압제자들에 대항하는 가난한 자들의 신학적 저항 작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본문들 전체

41 윗글, 470.

42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I』,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251-253.

43 윗글, 255.

44 윗글, 255.

는 느헤미야 5장 1절-5절에 언급된 갈등이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사회적 위기였음을 보여준다.⁴⁵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가난의 신학을 담고 있는 시편들 중에서 특별히 37편과 109편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시편 제1권과 제5권에 각각 속하는 이 시편들을 선택한 우선적 이유는 가난과 관련되는 용어들이 두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⁴⁶ 또한 시대적 배경 면에서 왕정기에 연원한 것으로 비정되는 37편과 포로기 이후의 것으로 간주되는 109편에서 가난과 관련된 사상이 과연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난의 개념이 어느 정도로 물질적 차원의 가난에서 영적인 의미로 확장 또는 변화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1) 시편 37편

먼저, 시편 37편의 최초 저작 시기와 최종적 편집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간략한 논의가 필요하다. 월슨의 도식에 따르면 시편 37편이 제1권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 시편의 최초 저작 시기가 왕정기였음을 시사한다. 계약제외의 전통이 지닌 요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22절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급들: 9, 11, 18, 22, 29, 34절과 37절 이하에 나오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언급들)은 이 시가 포로기 이전에 저작되고 또 사용되었다는 견해를 주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 시의 저작 연대를 확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최종적 본문의 완성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시

45 윗글, 256.

46 앞 페이지의 표 <시편에서 가난과 관련되는 단어의 분포> 참고.

47 A. 마이어, 『국제성서주석 시편(1)』, 김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424.

가 지혜문학의 특성과 읍기와 비슷한 점을 가졌다는 점 때문이다. 낸시(Nancy deClaissé-Walford) 등에 따르면 시편 37편은 지혜 전승에 속해 있으며 시편의 책보다는 잠언의 책처럼 들린다.⁴⁸ 우리가 포로기 이후 예후드라는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가난한 자의 시편이 제왕시들 사이에 포함되고 시편 전체의 최종적인 편찬이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 면에서 시편 37편의 최초 형태는 아마도 왕정기에 속하며 그래서 시편의 제1권에 속해 있지만 그것의 최종 본문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포로기 이후 귀환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이 겪었던 경험을 역올하게 고난을 겪었던 다윗의 생애에 빗대어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편 전체에서 다윗의 이름은 사회경제적으로 낮고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래서 시편은 스스로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대표자로서 다윗을 내세우는 것이다(예컨대 시 40:17). 특별히 왕정기 배경으로 상정되는 제1권에 속한 37편의 경우 가난과 관련된 서술은 포로기 이후 시편의 최종 편집과정에서 다윗의 고난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귀환포로 공동체가 추체험(追體驗)하고 이를 당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편 37편의 기본적인 교훈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지만 의인은 땅을 상속받는다(37:9, 11, 22, 28-29, 34, 38).⁴⁹ 히브리 시편 제1권의 독자는 시편 37편에서 의인과 악인 사이의 대조라는 친근한 영역을 발견하게 된다.⁵⁰ 아크로스틱(acrostic) 형식으로 된 이 시편은 두 절씩 묶인 단락 각각의 시작이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다. 많은

48 Nancy et al., *윗글*, 348.

49 James M. Hamilton Jr., *Psalms*, vol.1 (WA: Lexham Academic, 2021), 401.

50 Walter Brueggemann, William H. Bellinger, Jr., *윗글*, 183.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잠언과 비교되는 지혜시로 분류하면서 이 시편의 교육적 목적에 초점을 둔다. 그 편집 구성을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혜시는 네 단위로 나눌 수 있다. (1) 야웨에 대한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1-11절), (2) 악인들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뒤바뀐다는 것을 강조(12-22절), (3) 의인의 미래는 곧 축복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임을 강조(23-31절), (4) 보응 사상을 다시 강조(32-40절).⁵¹

이 시편의 목적은 “악인의 번영과 경건한 자의 고난 때문에 받게 되는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모든 길을 야웨께만 맡기고 의지하라”는 교훈(잠 24:19 참조)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의인의 시기와 고통, 그리고 신앙적 회의와 불평을 유발하는 시험거리인 악인의 번성과 형통이 여러 모양으로 서술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악인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1절)로서 “의인 치기를 피하고”(12절), 심지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는”(14절) 자들이다. 그들은 “여호와와 원수들”(20절)로서 언제나 “기회를 엿보아 의인을 살해”(32절)하려는 자들이다. 그런데 암담한 현실은 그 악인들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피를 이룬다”(7절)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이 시편의 화자는 악인의 필연적 심판을 강조하며 시편의 청중에게 야웨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고 기다릴 것을 교훈한다. 악인의 자손은 결국 끊어지겠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28, 29절). 지금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번성한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야웨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야웨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는 것이다(34절).

전체적으로 시편 37편은 ‘아나뱀’으로 불리는 가난한 자들과 ‘악인

51 김이근, 『시편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38.

들’(the wicked)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후자는 ‘그 땅’에서 잘려 나가고(9절), 비존재로 사라질(10절) 것이지만 전자는 ‘그 땅’을 상속받고 커다란 ‘샬롬’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9, 11절). 가난한 자와의 관련성에서 볼 때 시편 37편의 ‘아나빔’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분명하다. 가난한 이는 악인들의 박해와 중상모략에 시달리고(14, 32, 35절), 사회적 갈등에서 희생당하고(7, 12절), 유산을 빼앗기며(11, 16절), 굶주림으로 인해 괴롭다(19절).

그런데 시편 37편에는 ‘그 땅’을 언급하는 구절이 일곱 군데나 등장한다(3, 9, 11, 22, 29, 34절은 ‘아레츠’ 그리고 18절은 ‘나할라’). 시편 37편에서 뚜렷한 신학적 모티프는 땅의 소유(possession of land)와 그 반대인 축출(expulsion) 혹은 멸절(extermiation)이다.⁵² 그러므로 그 땅, 즉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 시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별히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영히 거하리라”는 29절의 전망은 땅 소유를 둘러싼 다툼이 두드러진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상징케 하는 것이다. 시편 시인들의 애절한 기도와 개인적 탄식, 그리고 사회적 분노 뒤에는 정의를 갈구하는 가난한 자들의 ‘사회경제적 투쟁’이 숨어 있다.

실제로 포로귀환 공동체는 예후드의 고토(故土), 즉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갈등을 빚었다.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당시 일부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유다 땅에 남아있었다.⁵³ 원래의 남은 자들은 주로 “그 땅의 비천한 자들”, “빈민”, 혹은 “가난한 백성”으로 묘사된다(왕하 25:12; 렘 39:10; 52:16). 유다 땅에 남겨졌던 사

52 Konrad Schaefer, *Psalms*, Berit Olam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1), 92.

53 이안 프로반 외 2인,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김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577.

람들은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야웨 신앙에 관한 성경 본문의 진술은 다소 이중적이다. 김지은에 따르면 그들의 신앙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종교혼합주의적 경향을 가졌다는 점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⁵⁴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종적 구성 자체가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약을 어기고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혼합주의적 종교를 지속하고 있었다(왕하 17:41). 이런 점에서 포로귀환 공동체가 될 때 이들 토착민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존하기가 어려운 집단이었다. 에스라에 따르면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이었다. 귀환 포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야웨 숭배를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우며 부당하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느헤미야의 대적”은 사마리아 총독인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인 도비야, 아랍인 게셈 등의 이방인 및 그들과 동맹한 혼혈의 유대인이었다(느 2:10, 19-20 ; 4:1-3; 6:1-19). 여기에는 에스라 4장에 등장하는 방백 르흠, 서기관 심새, 그들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 다블래 사람, 아바새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데해 사람, 엘람 사람 등과 앗시리아의 “존귀한 오스납발”(=앗슈르바니팔)에 의한 이방인 강제이주민들이 포함될 것이다. 전통적 야웨 신앙을 저버린 결과 히스기야의 민족통합적 유월절 초대(대하 30장 참조)와 요시아의 종교개혁(대하 34-35장)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유민들 중에 일부는 그들과의 혼혈로 동맹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 시절에 유다로 내려와 민족통일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지역에 남기를 고집했던 사마리아인들은 구별되어

54 김지은, “유다 땅 소유와 바벨론 포로의 관계”, 『성령과 신학』 18호 (2002), 58-71.

야 한다.⁵⁵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은 “가난한 백성”(렘 52:16)이다. 그러나 앗시리아의 이주정책에 의해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잡혼을 통해 그들과 혼합된 자들에 의한 토지 점유는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업(הקמה) 개념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었다.⁵⁶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초기 귀환포로들의 생각이었다.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거주민들에 대한 귀환포로들의 비판은 이미 그 땅과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땅을 되돌려 받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다(겔 11:14-21). 블렌킨쑤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은 바벨론 귀환포로들이 주장하는 토지 회복의 권리와 땅의 상속권을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한다.⁵⁷ 귀환자들의 주장은 그 땅을 떠난 적이 없는 자들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겔 33:24-26). 에스라 역시 그들은 귀환공동체를 위협했던 존재라고 말한다(스 3:3). 그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 스룹바벨 시절에 성전건축을 방해했던 자들과 동일시된다(스 4:4-5). 따라서 그들은 본래적으로 야웨의 땅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포로기 동안 땅에 대한 기억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리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포로귀환 초기, 팔레스타인을 떠났던 자들과 남겨진 자들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찰지점은 땅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55 김지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0집 (2001), 89-90.

56 김지은, “학개의 성전 재건 선포에 대한 역사적 연구”, 「구약논단」 8집 (2000), 87-89. 그리고 같은 저자의 “유다 땅 소유와 바벨론 포로의 관계”, 「성령과 신학」 18호 (2002), 61-65.

57 Joseph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MI: Eerdmans, 2009), 40-42.

시편 37편이 묘사하는 상황의 역사적 배경을 포로기 이후로 본다면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악인들’은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사야 58장에서 비난받고 있는 대상들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굽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4-7)

이사야 58장 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무시하는 이유를 지적한다. ‘보라, 너희는 몰상식하게도 금식하면서 소송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5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을 비판한다. 반면에 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설명한다. 진정한 금식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흉악의 결박에 매여있는 불우한 이웃을 풀어주며 그들을 옹아맨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금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억압하는 지배층이거나 유력자들임을 알 수 있다.⁵⁸ 이사야 58장의 악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흉악의 결박, 멍에에 묶인 가난한 동포들을 압제하던 자였다. 7절의 묘사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포로기 이후 가난한 자들의 상황을

58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이사야 40-66장』 (서울: 복있는사람, 2020), 533.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주린 자, 사회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여 유리하는 빈민, 몸을 가릴 것이 없어 헐벗은 자, 골육(고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사야 58장은 귀환포로 공동체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불순종과 일탈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고발한다.

2) 시편 109편

시 109편은 전형적으로 개인적 탄식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서론적인 탄원(1a절), 그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고통의 묘사(2-5절, 참조. 25절), 주된 탄원(26절), 두 가지 소원(28-29절), 찬양의 서원(30-31절) 등은 이 시편의 윤곽을 명확하게 나타내준다.⁵⁹ 제임스 해밀턴(James M. Hamilton Jr.)은 시 109편을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이것들이 다음과 같은 교차대구(Chiasm)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A) 1-5절 그들의 말을 대항하여 침묵하지 말라, (B) 6-15절 대적을 향한 저주, (C) 16-20절 축복 대신 저주하는 대적, (B') 21-25절 나를 위한 간구, (A') 26-31절 도움을 구하는 탄원.⁶⁰

역사적 배경 면에서 시 109편은 제5권에 속한 시로서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주전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시도가운데 많은 대적들과 장애물을 직면해야 했다. 예언자와 제사장적 목소리는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관계를 고수하고 존중하도록 일깨웠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헤세드의 언약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맞닥뜨렸다. “그들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

59 레슬리 알렌, 『시편 101-150』, WBC (손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145.

60 James M. Hamilton Jr., 윗글, 282.

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다”(16절).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26절) 헤세드를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 대립하는 자신을 도와주시도록 간구한다.⁶¹

시 109편은 시편의 제1권과 2권에서 다윗이 그의 대적에 대항하여 기도했던 저주를 포로 후기에 다윗 계열의 미래 왕이 경험한 것으로 투사하고 있다.⁶² 원래 다윗을 배신했던 역사적 인물이 다윗 계열의 미래 왕을 배신하는 신학적 인물로 정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탄원자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묘사한다. 22절과 24절에서 화자는 다음과 같이 애원하고 있다.

כִּי־עָנִי וְאֲבִיוֹן אָנֹכִי וְלִבִּי הָלַל בְּקִרְבִּי (시 109:22)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בְּרִבְבֵי כֶּשֶׁלֹוּ מִצֹּמֹם וּבִשְׂרֵי כֶּחֶשׁ מִשָּׁמֶן (시 109:24)

굶주림으로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기름으로 인해 내 몸은 수척하
오며

그런데 여기서 22절은 개역개정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번역해도 무방하겠지만 24절의 “금식하므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시인의 무릎이 흔들리는 것은 종교적 경건 차원의 ‘금식’ 때문이라기보다는 ‘먹을 것의 결핍’으로 인한 굶주림 때문이며 시인의 육체가 수척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질이 함유된 ‘기름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61 Nancy deClaisse-Walford et al., 윗글, 833.

62 James M. Hamilton Jr., 윗글, 285.

원수에 대한 탄원자의 증오는 하나님께서 그를 빈곤과 불행에 처하도록 간구하게 만든다. 원수가 당하도록 기원하는 불행들은 아마도 가난한 자로서 탄원자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수의 목숨이 단축되고 사회적 평판은 박탈되기를 기원한다(8절). 원수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집도 없는 거렁뱅이가 될 것이다(9-10절). 그들은 고리대금업자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의 자손은 끊어지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채 저주받고 멸망해야 한다(11-15절). 시 109편 6-15절에는 이처럼 가난한 자가 겪는 현실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탄원자는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이 원수에게 똑같이 되풀이되기를 기원한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17절). 시인의 저주는 명백히 이런 의미일 것이다: “나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 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특별히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 중에 하나로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기”(11절)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편의 화자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일상적으로 겪었음을 시사한다. 원수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기 때문”(16절)이다. 그래서 원수는 죽을 때까지 극도의 가난을 겪어야만 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에는 가난에 대한 영성화 혹은 신학화의 관념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⁶³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63 예를 들자면 시편의 가난 개념에 대한 자마니 부키 카팡(Zamani Buki Kafang)의 해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편에서의 가난에 대한 모든 언급을 비유로 간주하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아니’와 ‘에비온’이 구약의 다른 책에서는 통상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니지만 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시편 22:26처럼 “가난한 자들(아나뎀)이 먹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는 본문조차도 은유적이며 영적인 의미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시편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을 영성화시키려는 시도는

이 가난과 관련된 용어들이 지닌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의미를 중화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특별히 6-15절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난에 대한 생생한 묘사이다.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Hans-Joachim Kraus)의 주장에 따르면 시편의 가난한 자들은 정의가 거부된 자들이며 아무런 영향력이나 신분을 지니지 못한 자들이다. 사회적 불의가 갖는 이러한 특징들이 너무 간단하게 종교적이나 영적인 해석으로 치환되어서는 안된다.⁶⁴ 가난이라는 용어의 기본적 의미는 정의에 대한 권리 혹은 법률적 도움을 위한 신적인 개입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경건이라는 자기의식으로 지나치게 빨리 이동해서는 안된다.⁶⁵

그런데 이 시편은 고소당한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도로 볼 수 있다. 법정적 어휘들과 직접적인 기도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시편의 그러한 역할과 배경을 뒷받침해 준다.⁶⁶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2, 3절). ‘악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그리고 ‘근거없는 공격’ 등은 법정의 소송제기 상황을 연상시키는 용어들이다. 시 109편에 의하면, 악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할 뿐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까지 하는데(16절),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따돌림이나 중

옹호할 수가 없다. Zamani Buki Kafang, “A Semantic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Concept of ‘Poor’ in the Psalms,”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School, 1993); Zamani Buki Kafang, *The Book of Psalms: An Introduction to Their Poetry* (Kaduna: Baraka Press, 2002).

64 Hans-Joachim Kraus, *Theology of the Psalm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152.

65 윗글, 152.

66 레슬리 알렌, 윗글, 145.

교적 박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니 시 37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상황과 관련이 될 수도 있다. 악인에 의한 의인의 살해 시도는 31절에서 요약한 것처럼 “궁핍한 자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14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 109편의 전망은 37편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 사이에 사회경제적 이해상충이 두드러진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포로귀환 공동체의 역사적 현실을 상정케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시편의 화자는 피고소인(the accused man)으로서 악인의 부당한 소송에 의해 재앙을 당한 자임을 암시한다. 시인은 악인들이 “인자를 배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하는 자라고 말한다(16절).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편 37편과 109편은 포로기 이후, 특별히 귀환포로들의 초기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가난한 사람이 빚에 내몰린 나머지 자신의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에게 토지는 물론 재산과 가족까지 빼앗긴 것을 기술하는 느헤미야 5장의 상황을 또한 연상시킨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느 5:1-5).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여 최소한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인들은 그야말로 “앞니는 장

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잠 30:14)이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들은 강제적 채권 회수를 위해 전문적인 로펌이나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거물급 변호사를 동원했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법률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그들의 부당한 소송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다. 그런 결과로서 가난한 자들은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존재의 중심이 부서진 상태이다(시 109:22). 불의한 법정에서 억울함과 비통함으로 심장이 상한 피고인 가난한 자의 유일한 탄원처는 가난한 자의 오른편이 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다.

6. 결론

시편은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아우성을 담고 있다. 우리가 시편에서 어떤 일정한 내러티브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시편의 내용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시편의 가난이 담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본문의 언어와 연결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골고루 땅의 혜택을 누리는 상태를 향유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어긋난 사회경제적 불의가 만연할 때 가난의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경제를 바라보는 성경적 역사관의 당연한 전제이다. 이런 점에서 시편에서의 가난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데 실패한 왕정의 폐해와, 바벨론 포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회복하지 못한 포로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고발하는 중요한 렌즈의 역할을 맡고 있다. 시인의 외침은 가난한 자의 고엘, 즉 “피의 복수자”이신 아웨게 정의를 요구하는

www.kci.go.kr

것이다.⁶⁷

따라서 우리는 시편의 가난을 단지 영적 현실에 대한 비유나 종교적인 상징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의 가난을 비유적인 차원에서 혹은 영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물론 시편에는 창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가난에 대한 보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설사 이들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그 용어들이 갖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의미를 완전히 희석시키거나 중성화시킬 필요는 없다. 시편이 말하는 가난을 지나치게 ‘영성화’(spiritualize)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근본적인 생각이다. 시인이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표현을 단지 경건의 수사나 종교적 겸손과 동일시하기 이전에 누적된 고통의 복합적 경험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구약성서에서 가난은 철폐되어야 할 악이다. 만일 전혀 가난하지 않은 우리가 가난의 개념을 완전히 영성화시켜 버린다면 진정한 빈곤의 무게를 간과하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 시편에서의 빈곤은 정말로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의 욕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난과 관련된 어휘에 대하여 시편 전체에 대한 통계 조사를 통해서 가난의 용어들이 대부분의 경우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가난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편에 나타난 가난한 자의 탄식은 개인적 차원의 그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경험을 담고 있다. 시편 제1권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대변하는 가난한 자의 경험은 개인사적 경험만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공통 경험을 반영한다. 시편의 제1권과 제5권에 가난의 문제가 집중된 현상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 과거 왕정기의 전승이 반영, 투사되어 재상황화(recontextualization)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67 서인석, 율글, 39.

는 1권에 속한 37편과 5권에 속한 109편 모두를 포로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었다. 시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의 사회경제적 정체를 이해하는 길은 문학적 읽기가 아니라 역사비평적, 사회학적 이해의 틀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이곤, 『시편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지은, “학개의 성전 재건 선포에 대한 역사적 연구”. 『구약논단』 8 (2000): 83-101.
- _____,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0 (2001): 85-101.
- _____, “유다 땅 소유와 바벨론 포로의 관계”. 『성령과 신학』 18 (2002): 58-71.
-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이사야 40-66장』 (서울: 복있는사람, 2020).
- 라이어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I』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레슬리 알렌, 『시편 101-150』 (손석태 옮김), (WBC; 서울: 솔로몬, 2001).
- 바이저, A., 『국제성서주석 시편(I)』 (김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서울: 분도출판사, 1979)
- 이안 프로반 외 2인,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김구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이일레,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021년 12월), 187-214.
- _____,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 연구”. 『성경원문연구』 (2022년 4월): 37-59.
- _____,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의 종말론적 희망”, 『구약논단』 (2023년 9월), 216-248.
- 최지승,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 시편 74편과 76편의 אֲנִי(아니)에 대한 해석적 전환을 중심으로”. 『구약논집』 (2023년 3월): 161-191.
- Adamo, David Tuesday, “The Poor in the Book of Psalms,” *OTE* 27/3 (2014): 797-815.

- Birkeland, H., *ANI und ANAW in den Psalmen* (Oslo: Dybwad, 1955).
- Blenkinsopp, Joseph,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MI: Eerdmans, 2009),
- Bremer, Johannes, "Eine 'Armenredaktion' im 1. Davidsalter? Impulse vor dem Hintergrund sozio-ökonomischer Entwicklungen" F.-L. Hossfeld, J. Bremer and T. M. Steiner(ed.), *Trägerkreise in den Psalmen*, BBB 178 (Göttingen: V&R, 2017): 181-205
- Brueggemann, Walter and Bellinger, Jr. William H., *Psalms*,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P, 2014).
- Creach, Jerome F. D., "The Destiny of the Righteous and the Theology of the Psalms", Jacobson, Rolf A.(ed.), *Soundings in the Theology of Psalms: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Minneapolis: Fortress, 2011).
- Croft, Steven, *Identity of the Individual in the Salms, JSOT:Supplement Series 44* (Sheffield: Sheffield Press: 1987).
- deClaissé-Walford, Nancy et al., *The Book of Psalms*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 Eisenstadt, S. N., *Political Systems of Empire: The Rise and Fall of the Historical Bureaucratic Societies* (New York: Free Press, 1969)
- _____, "Systemic Qualities and Boundaries of Societies: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Jeffery C. Alexander(ed.), *Neofunctionalism*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1985)
- Fabry, Bonn, "בָּרַךְ"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I,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ed.); transl. by J. Willis, G. Bromilry and D. Green (Grand Rapids, MI: Eerdmans, 1978),
- Gerstenberger, Erhard S.,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4 (Grand Rapids, MI: Eerdmans, 1988).
- _____, "Theologies in the Book of Psalms", Peter W. Flint & Patrick D. Miller(ed.),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 Reception* (Boston: Brill, Leiden, 2005).
- Hamilton Jr., James M., *Psalms*, vol.2 (WA: Lexham Academic, 2021).
- Kafang, Zamani Buki, "A Semantic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Concept of 'Poor' in the Psalms"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School, 1993).
- _____, *The Book of Psalms: An Introduction to Their Poetry* (Kaduna: Baraka Press, 2002).

- Kraus, Hans-Joachim, *Theology of the Psalm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 Miller, J. Maxwell and Hayes, John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2nd edition (London: SCM, 2006).
- Rahlf's, A., *עני and ענו in den Psalmen* (Oslo: Dybwad, 1892).
- Ro, Johannes U., "Socio-Economic Context of Post-Exilic Community and Literacy", *ZAW* vol. 12094 (2008): 597-611.
- Schaefer, Konrad, *Psalms*, Berit Olam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1)
- Schultz, Carl, *Ani and Anav in Psalms* (Ph. D. diss., Brandeis University, 1973).
- Tucker, Jr., W. Dennis, *The Reign of Yahweh and The Theology of the poor in the Final Shape of the Psalter* (Ph. D. diss.: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7).
- _____, "A Polysemiotic Approach to the Poor in the Psalm", *PRSt* (2004): 425-440.
- Wilson, Gerald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CA: Scholars Press, 1985).
- _____, "The Use of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OT* 35 (1986): 85-94.

검색어

시편의 가난한 자들, 사회경제적 상황, 포로기 이후, 가난의 영성화, 사회과학적 읽기

[ABSTRACT]

Socio-Economic Identity of the Poor in the Psalms

Gi-Hyung Park
Sungsil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eme of poverty in the Psalms must be understood in light of the religious and socioeconomic context of the post-exilic period. The thesis of the paper is that poverty in the Psalms refers to real poverty, and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or, we must keep in mind the underlying historical and socioeconomic context. First, a review of the history of research on the poor in the Psalms reveals the multifaceted interpretive possibilities of the meaning of poverty and the theology of poverty in the Psalms, but the semantic scope of poverty in the Psalms is primarily concerned with material poverty. Second, sociological studies of the Psalms show that the theology of poverty in the Psalms developed in various forms over the course of history, with the final editing in the post-exilic period. Third, matching the various terms related to poverty in the Psalms, in association with the time periods suggested by the final form of the five books of the Psalter, reveals a concentration of poverty themes in Books 1 and 5. What this suggests is that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poor has a concrete connection to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post-exilic period. The concentration of the issue of poverty in Books 1 and 5 can be seen as a recontextualization of the post-captivity period, reflecting and projecting the legacy of the previous dynasty. Therefore, a socioeconomic historical study of this

www.kci.go.kr

period is essential.

For this purpose, we interpret Psalm 37 and Psalm 109 in a historical-critical context, revealing that both psalms reflect the actual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post-exilic period. In conclusion, we need to move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poverty in the Psalms as merely an allegory or religious symbol for a spiritual reality. There is no denying that there are many more perspectives on poverty in the Psalms that require crea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But this ought not to completely dilute the basic economic meaning of the terms. It is my fundamental argument that we should not overly “spiritualize” the poverty in the Psalms.

key words

the poor in the Psalms, socio-economic situation, post-exile period, spiritualization of poverty, sociological interpretation

투고일: 2023년 10월 11일

심사일: 2024년 01월 1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2월 03일

www.kci.go.kr